



## 水邊情談

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錦繡江山이었다. 그 뜻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산천이었음을 말한다.

물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깊은 산중 조그마한 계곡의 물길을 만난다. 이 계곡에는 이름 모를 산천어와 송사리떼와 물 밑에는 가재가 서식하고 있다. 때로는 물새들이 물고기를 먹고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자연 그대로다. 여기에는 산만 있어도 안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서 조화되어 어울리며 또 물만 있어도 그 아

점 오염으로 증명을 잃게 되었고 또 개발로 인하여 폐허된 산하에는 오염된 물로 인하여 그 아름답던 계곡의 산천어떼도 가재도 구경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탓일까 한다.

흔히 옛 시인들은 물가에 앉았다 나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소중한 자연을 그 속에 있는 수자원을 아니 물을 오염시켜서 우리 세대는 물론 앞으로의 차세대에 넘겨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죄책감에 휩싸이곤 한다.

요즈음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자연을 보호하자는 자연보존연구원팀이 현지 답사를 해서 환경보전측면에서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 주겠다고 한다.

한 여름 홍수가 지나면 소양호에 수십트럭분의 오물이 수거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. 이는 설악산에서부터 북한강 수계에 등산객, 관광객, 농촌의 폐기물, 주민의 폐기물 투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오염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 준 문자 그대로의 "금수강산"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날이 다시 와야겠다. 그리고는 시골의 버드나무 아래 샘에서 솟아나는 우물가에 아름다운 시골처녀가 바가

## 금수강산은 어디에

름다운 멋이 없다.

필자는 삼십칠팔년 전 군대생활을 할 때 강원도 최전방에서 사병으로 근무할 당시 일요일에는 여지없이 주부식을 타가지고 물길을 따라 상류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. 그 곳에는 아무 민가도 없고 가끔 지저귀는 산새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의 물가에서 군 생활의 피로를 푼다.

그리고는 명상에 잠기고 때로는 이 아름다운 산천을 중국의 무릉도원에 비교하기도 한다. 그렇게 아름다운 산천이 이제는 인간의 개발이다 또는 오물의 투기다 오폐수의 방류다 하는 인간의 남용으로 금수강산의 산천은 점

### 최 예 환

(강원대학교농공학과교수/  
한국 농공학회장)

지에다 지나가는 객에게 물 한  
모금을 줄 때 그 아름다운 물  
맛. 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

가며 꿈과 낭만과 이상을 우리  
후손에게 넘겨줄 정서가 서려있  
다고 본다. 오늘도 그 옛날 시골

의 물 맛을 보고 싶다. 도시의  
수돗물이 그 맛과 같아졌으면 한  
다. ☞